

오순절 후 열두번째 / 창립 46년 기념 주일
THE WORSHIP SERVICE OF 12TH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4년 8월 11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208 장 “내 주의 나라와” (통일 246)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32 번 시편 71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도 Prayer of Intercession		한경준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사도행전(Acts) 11:20-26	조희연 집사
찬 양 Anthem	“찬양과 감사의 노래”	찬양대
설 교 Sermon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May We Become Such A Church)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주의 만찬 Communion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Closing Hymn	620 장 “여기에 모인 우리”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박대웅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임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죄된 욕망에 사로잡힐 때가 많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함을 잘 알면서도,

세상의 소리에 더 민감하며, 세상과 타협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앞에서 무기력해지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불신앙과 교만과 위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며,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 견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행 11:21)

“The Lord's hand was with them, and a great number of people believed and turned to the Lord.” (Acts 11:21)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8/11 (주일)	8/12 (월)	8/13 (화)	8/14 (수)	8/15 (목)	8/16 (금)	8/17 (토)
본문	삼상2 렘41 시15,16	삼상3 렘42 시17	삼상4 렘43 시18	삼상5,6 렘44 시19	삼상7,8 렘45 시20,21	삼상9 렘46 시22	삼상10 렘47 시23,24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8/14수 오후7:30)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교회” (엡4:25-32)
토요 새벽기도회 (8/17토 오전6:30)	“찬양을 받을 이시로다” (시148:1-12)

지난 주일 (8/4) 말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엡 4:1-16, 요 6:24-35)

사도 바울이 기록한 신약의 여러 서신서들은 대부분 “아는 것” (교리적 가르침) 과 “행하는 것” (실천적 삶)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도 1장부터 3장까지는 “아는 것” (교리적 가르침)을 먼저 전해주고, (이어지는)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는 “행하는 것” (구체적인 실천적 삶)을 말씀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둘(“알”과 “삶”)이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까지 이르게 되며, (또한) 그리스도를 닮은 영적 성숙함을 드러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은 영적 성숙함으로 까지 성장하게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며? 또한, 이것을 가능케 하는 요인은 어떠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1)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엡4:1-3)는 것이고, 2)둘째는, 하나님의 아들(예수 그리스도)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엡4:13)는 것이며, 3)셋째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엡4:15)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이레니우스(St. Irenaeus)는 “인간이 기록해지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없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열망보다 더 인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추구하게 되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며, 이를 통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전해지고, “복음의 진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에게 까지 영적으로 성장하십시오. 그리하여,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제대로 보여주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